

올 김장 이달말 이후로 미루세요

배추 값 작년 3배 올라...김장배추 출하되면 떨어질 듯

“올해 김장은 11월 말 이후로 미루세요.”
 태풍과 재배면적 감소로 배추 가격이 예년의 두배 수준으로 급등했지만 전남 등 전남지역에서 김장배추가 본격 출하되면 11월 말 이후부터는 배추 값도 소폭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배추 값 지난해보다 3배>=8일 광주시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에서 배추(상품·1방) 12kg의 경매 가격은 평균 8000원으로 1년 전보다 3배 가까이 올랐다. 배추 전체 평균 경매가격도 1년 전 2000원 안팎이었던 것이 올해는

5000~6000원 수준으로 급등했다.
 올해 김장배추는 작년 김장시기 배추 가격 폭락으로 배추 농가가 고구마 등 다른 작물로 품종을 전환해 재배 면적이 줄어든데다 8월 지속된 강우로 인해 파종시기가 지연되고 파종된 배추마저 태풍 피해로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남산 김장배추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이달 하순부터 배추 가격이 내려갈 전망이다.
 농협중앙회 광주공판장 배추 담당 고성 경매사는 “태풍으로 배추 파종

이 늦었던데다 추운 날씨로 생육이 더더 배추 출하가 좀 늦어질 수 있지만 해남산 김장배추가 본격적으로 나오면 배추 값도 소폭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재배면적이 줄어들어 부족한 상황이기에 배추 값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업체 ‘반값 배추’ 예약판매>=지역 유통업체들은 배추값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소비자들을 잡기 위해 ‘반값 배추’를 내세우며 예약판매에 나섰다.

이마트는 지난 7일부터 산지에서 계약재배로 준비한 김장배추를 1통당 1200원에 판매 중이다. 현재 이마트 판매가(2980원)보다는 약 60% 저렴하다. 한 명 당 최대 18통까지 살 수 있다. 배추를 받아 갈 때 시세가 예약 판매가보다 싸지면 차액을 보상해 주는 ‘최저가격 보장제’를 내세웠다.
 롯데마트는 배추를 1통 당 1150원에 판매하며 9일까지 선착순 예약을 받은 뒤 이달 말 배추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다음달 5일까지 충남 서산과 아산에서 기른 배추 120만 포기를 한 통당 1650원에 판매한다.
 /이문미기자 emlee@kwangju.co.kr



그린카 세차 퍼포먼스 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그린카 글로벌 비즈니스 플라자 2012'에서 레이싱 모델들이 친환경 세제를 이용해 세차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감독기능 쪼개야” “5년간 1조 낭비” 금감원 분리 찬반 논란

금융감독원을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으로 나누는 방안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금융 부실로 생기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면 금감원을 쪼개야 한다는 학계와 정치권에 맞서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국내 금융감독 체계를 ‘쌍봉형(Twin Peaks)’ 모델로 전환하면 앞으로 매년 2000억원씩 5년간 1조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8일 추정했다.
 쌍봉형 감독체계란 금감원을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기구와 금융회사 영업행태 감독기구로 나누는 방안이다. 이렇게 하면 인력·시설을 확충하는 비용뿐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감사가 불필요하게 늘어날다는 게 쌍봉형 모델에 대한 반대 논거다.
 그러나 학계와 정치권에선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 등을 교훈 삼아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금감원을 쌍봉형 체제로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비자 권익을 지키는 영업행위 감독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건전성 감독은 한 기구에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명지대학교 원승연 교수(경영학)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것과 소비자 권익을 지키는 것은 이해 상충의 관계에 있다”며 “금감원을 건전성감독원과 시장감독원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협뉴스

광주, 생산·소비 줄고 수출 증가세 둔화 전남은 수출·건축착공 면적 크게 감소

3분기 지역경제동향

지난 3분기 광주의 생산과 소비가 모두 감소했다. 수출도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광주지역 경제지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전남도 금속가공·화학제품 등의 효조로 생산이 늘었지만 수출, 소비 등은 여전히 부진했다.
 8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은 지난 3분기 자동차와 트레일러 등의 부진으로 광공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7% 감소했다.
 수출도 지난 1분기와 2분기 6.1%씩 증가했던 것이 3분기에는 1.6% 증가한데 그쳤고 대형소매점판매(소비)도 백화점 판매가 -5.5% 줄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9% 감소했다. 특히 주거용 등 건축착공이 줄면서 건축착공면적은 -48.7%로 크게 감소하면서 대전(-60.4%)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취업자수도 1.7% 소폭 증가했으며 인구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4명 증가한데 그쳤다.
 전남지역은 화학제품(5.4%)·금속가공제품(42.8%) 등의 증가에 힘입어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하면서 대전(17.5%), 충북(8.1%)과 함께 증가율이 높은 곳에 해당했다. 감소세를 이어왔던 대형소매점 판매도 1.3% 소폭 늘면서 증가세로 전환했다.
 하지만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감소했고 건축착공면적도 -12.5%가 줄었다.
 또 취업자수는 2.4% 증가했지만 인구는 오히려 1970명이 빠져나가면서 서울(-2만6169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인구유출이 많았다.
 한편 전국의 경우 지난 3분기 담배·전자부품·화학제품 등의 생산이

활발한 대전(17.5%)·충북(8.1%) 등은 다른 지역에 비해 광공업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제주와 광주는 음료·자동차·트레일러 등의 생산이 부진해 각각 -5.9%·-4.7% 감소했다.
 소비는 강원과 충북이 각각 16.2%, 9.0% 크게 증가한 반면 경남 -4.6%, 전북 -2.7% 감소했다.
 고용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취업자가 증가했다. 특히 충남(7.5%)·대구(4.1%)·강원(3.9%) 등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과 제조업 등의 취업이 늘어나면서 다른 지역보다 크게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수출과 수입은 각각 -5.6%·-7.1% 감소세가 뚜렷했으며 수출은 선박해양구조물과 정밀화학원료 등의 부진으로 경남(-26.7%)·전북(-19.7%)에서 크게 감소했다.
 /이문미기자 emlee@kwangju.co.kr



8일 오후 송기진 광주은행장 등 주요 인사들이 서울 금천구 독산동 광주은행 금천금융센터지점에서 열린 개점식 행사에 참가한 모습.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서울 8번째 점포 개점

광주은행이 서울지역에 8번째 점포를 열고 본격 영업에 나선다. 광주은행은 8일 오후 서울 금천구 독산동 ‘금천금융센터지점’에서 광주은행 금천금융센터지점 개점식 행사를 열었다.
 광주은행의 153번째 지점인 금천금융센터지점은 금천, 구로, 영등포, 관악, 광명, 시흥 등 서울 서남부권 일대 광주은행 고객들에게 원활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광주은행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날 개점식에는 송기진 광주은행장, 김두성 금천구의회 의장, 김응복 금천구 부구청장, 진기우 한국산업단지공단 상무이사, 김광철 재경 광주·전남항우회 회장, 홍성렬 상공회의소 금천구상공회 회장 등 주요 기관장과 우량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했다.
 송기진 광주은행장은 “서울 서남권 소재 호남기반 기업체 등 광주은행의 많은 잠재 고객들에게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KT 와이파이 세계 최고 WBA 서비스 혁신상 수상

KT의 와이파이 서비스 품질이 세계 최고로 꼽혔다.
 KT는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와이파이 산업 어워드 2012’에서 ‘최고 와이파이 서비스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세계 초고속 무선사업자 협의체(WBA)가 주관한 이번 어워드는 올해 처음 시작된 와이파이 분야 글로벌 시상식이다.
 와이파이 관련 업계에서 뛰어난 성과와 혁신을 이룬 넉 기업에게 상을 수여하는데 KT가 와이파이 1위 사업자인 AT&T와 BT를 제치고 이 상을 받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코스피지수	1,914.41 (-23.14)
코스닥지수	519.04 (+0.59)
금리 (국고채 3년)	2.76% (-0.02)
원·달러 환율	1,089.30원 (+3.9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6배 격차 지출 규모는 지속 둔화

경기 불황 등으로 사교육시장 평창이 정체 국면을 맞고 있지만 소득계층간 사교육비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투자협회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고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이 저소득층보다 6배나 많았다.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간 가구당 교육비를 소득 계층별로 보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계층은 지난 2분기에 교육비로 매달 38만 4175원을 지출했다. 같은 기간 하

위 20%인 1분위 계층은 6만5529원을 교육비로 썼다. 소득계층간 교육비 격차가 5.9배에 달했다.
 사교육비의 경우, 지난 2분기 상위 20% 소득층의 지출은 가구당 28만2425원, 하위 20% 계층은 4만4436원으로 6.4배 차이를 나타냈다. 사교육비 지출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수지의 교육 지출 중 학생학원교육 부문을 기준으로 집계했다.
 소비지출에서 사교육비가 차지

하는 비중도 고소득층이 훨씬 높았다.
 전체 사교육비 지출은 전반적으로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다. 지난 2분기에 전국 2인 이상 가구당 월간 사교육비 지출은 평균 16만 9367원으로 작년 같은 분기의 16만 5861원보다 2.1% 증가했다. 2분기 가구당 월간 전체 소비지출 규모는 238만6084원으로 작년 2분기 230만3745원보다 3.6% 늘었다. /연협뉴스

첨단2지구 토담빌딩 상가·분양 임대

“8,000세대 독점상권 선점가능”

1층	농협, 카페베네, 투시랑 입점 확정
2층	보험, 증권사, 호프, 병·의원
3~5층	전문클리닉, 한의원
6~7층	전문학원
8층	패밀리레스토랑, 스카이라운지, BAR

신공공 완료

시공 | 나로건설 | 분양 및 임대문의 | 062-576-8938 · 016-885-0881

휴로스 도시형생활주택

하남지구 최초 명품 도시형생활주택 분양

총 118세대 (5TYPE / 41㎡~65㎡)
 “1층 상가 분양완료”
 “소액투자에 정답 5천만원 소형아파트 2채 가능”

모델하우스 11월 9일 오픈

주매전사관 방문고객제 사은품 드립니다.

시공 | TODAM huros | 분양 및 임대문의 | 062-576-8938 · 016-885-0881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21년 가발 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50만원~

특수가발 발매!!!

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 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안가든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 장 이 수 채 011-607-5330

시공 | NAVER 주스(D) 대산프리모 | 가발